

##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셨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다. “믿음으로 에녹은...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 11:5)고 하였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가? 에녹이 한 일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창 5:22, 24).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동행하려면 그분과 마음이 맞고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구체적인 지침서인 성경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케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 17:14)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 곁에 가만히 있다든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단지 믿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교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뜻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약속과 위로의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며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변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였는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일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날들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이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이었기에 그가 드린 제물만 아니라, 아벨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